

관세청 통관국장,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현장 점검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마약·총기류 차단 위한 통관검사장 증축 현황 점검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월 9일(금)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경기 김포시 소재)를 방문해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를 맞아 국제 이사화물 통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오는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의 증축 진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다. 센터 개소(2014) 이래 물동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센터 내 통관검사장을 연면적 5,915m² 규모로 증축하고 화물 자동이송 설비 등 첨단 설비를 도입해 검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통관검사장 증축이 완료되면 서울세관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양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국제이사화물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컨테이너 반입 즉시 적출 과정에서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한 후 우범화물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통관 체계가 마련되어,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회 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 국장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의 성공적인 증축을 통해 국민의 거주 이전 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통관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천정 (042-481-7810)
		담당자	사무관	강승현 (042-481-7851)